

參與觀察를 통해서 본 農村住民의 「삶의 質」

金 東 一
 首席研究員, Ph. D.(社會學), 農村社會研究室
 庾 喆 仁
 研究員, 農村社會研究室

- I. 現地調査의 基本方向
- II. 調査地域의 概況
- III. 觀察과 面接을 통한 印象 및 「삶의 質」의 內容
- IV. 앞으로의 課題

I. 現地調査의 基本方向

1. 「삶의 質」 研究의 背景

최근 우리나라에서 市民이나 住民의 「삶의 質(quality of life)」測定에 관한 관심이 學界나 研究機關뿐 아니라 政府의 官僚들간에도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 삶의 質이란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으로서 學者들 사이에 아직도 개념이나 定義에 관해서 意見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用語가 어떻게 社會科學者들에 의해 論議되기 시작하였고, 이 概念을 중심으로 한 社會調査가 활발하게 된 背景을 살펴보면 대략 삶의 質이란 用語의 意味를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유엔과 같은 세계기구나 많은 先進國들이 人間의 生活水準이나 삶의 質을 주로 經濟的인 측면에서 測定하여, 物質的 豊饒 즉 所得(per capita income 또는 family income)을 生活的 質이나 生活水準의 指針으로 사용하여 왔다. 돈으로 환산되는 이러한 生活水準의 指針은 비단 개개인의 生活水準뿐 아니라 國家間의 生活水準, 심지어는 社會發展 정도나 文化水準을 測定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산업이 고도화되어 物質的 豊요를 누리는 선진국에서, 높은 物質的 生活水準이 人間의 궁극적인 目標인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보장해 주는가에 대한 反省이 일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國際社會間에도 所得이나 GNP만을 기준으로 해서 先·後進國을 가리는 것은 物質로 人間의 生の 價値를 측정하려는 것이라는 反省이 일고, 이와 관련하여 社會나 地域의 發展의 基準을 財産이나 所得의 增加에만 두는 것이 비판의 對象이 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같은 많은 開發途上國家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目標은 GNP成長에 있었고, 이 目標의 빠른 달성을 위해 産業化 즉 非農業化에 역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長期經濟開發計劃을 세우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 社會가 발전했느냐를 평가할 때 GNP의 成長과 1人當 國民所得額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國家와 社會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알려고 하였다.

社會의 발전이나 개인의 福祉向上을 이처럼 所得 중심으로 평가할 때, 돈이나 物質로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數量化(quantification)할 수 없는 人間生活의 많은 부분이 등한시되어, 길게 보면 나중에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점들이 國家發展 자체에 생겨나게 된다. 이런 背景에서 社會科學者들은 生活水準(living standard)이라는 용어 대신 「삶의 質」이라는 개념을 조작하고, 삶의 質을 측정하기 위한 社會指標(social indicators)의 作成에 노력하게 되었다. 물론 삶의 質을 측정하는

社會指標에 所得과 같은 經濟指標도 포함되지만, 經濟指標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즉 産業化되어 國民所得이 아무리 높아졌다 해도, 公害問題 같은 것을 등한히해서 강과 냇물이 오염되고 마실물이 없어 진다면, 그러한 産業化의 결과는 發展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를 의미한다.

人間生活의 質을 측정하는 社會指標의 開發에 관심을 가진 것은, 美國을 중심으로 한 西歐先進國에서도, 불과 10餘年 정도밖에 되지 않아 社會指標의 작성에 아직 연구해야 할 여지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農村社會의 實態와 農民들의 삶의 質에 관한 기본적인 資料가 빈약하므로, 農村 實情에 맞는 社會指標를 개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農村實態調査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本調査를 推進하기에 앞서, 豫備調査로서 이번의 現地調査를 갖게 된 것이다.

2. 調査의 操作的 準據를

美國의 保健教育社會福祉省(The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은 1969년에 발간한 「社會白書에 관한 研究(Toward a Social Report)」에서 市民의 삶의 質을 측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社會指標를 다음과 같이 크게 7개 分野로 분류하였다.

- ① 健康과 疾病.
- ② 社會移動.
- ③ 環境.
- ④ 所得과 貧困.
- ⑤ 公共秩序와 安全.
- ⑥ 教育, 科學 및 藝術.
- ⑦ 市民의 社會參與와 疎外.

이와 같은 社會指標가 人間의 삶의 質을 전부 반영하느냐 아니냐, 또는 이러한 項目들을 모두 科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本調査에서 파악할 社會指標의 對象으로 정하여 農村과 農民을 관찰하는 틀(framework)로 사용하였다.

3. 調査方法

本調査의 方法으로 택한 參與觀察은 장기간 調査地에 거주하면서 調査對象 住民과 관계를 가지고 社會現象을 찾는 것으로서 調査票를 가지고 하는 面接方法에 先行되는 調査方法이다. 調査期間이 1979年 12月 24日 부터 12月 31日까지의 8일간으로 충분한 參與觀察이 어려웠으나, 調査地域인 全南 莞島郡 〇〇面 〇〇리는 調査者의 연고지여서 이미 調査者와 調査對象 住民과의 관계가 가까와 觀察의 方法이 가능하였으며 數年間의 變化도 느낄 수 있었다.

主要調査活動內容은 ① 住民과의 非形式 面接(informal interview), ② 새마을事業(道路擴張취로사업)現場 訪問, ③ 마을 잔치 參與觀察, ④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里長 및 새마을指導者와의 面談과 〇〇面長, 支署長 및 面職員과의 面談 등이다.

參與觀察을 짧은 시간에 수행함에 따라 本調査內容의 結果와 解析에는 다음과 같은 制限이 따른다.

(1) 參與觀察을 통한 現地調査는, 標本抽出을 통한 質問紙 面接法이 代表性과 범위의 廣大性을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달리 調査의 깊이, 즉 包括적이기보다 集中的인 調査를 하게 된다. 調査期間이 짧아 일반적인 農村問題가 調査地域의 狀況에서 어떻게 확인되고 說明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住民의 問題意識이 주된 觀察對象이 되었다.

(2) 短期間의 參與觀察은 조사하려는 地域 구성원の一部와만 접촉하기 쉽다. 즉 地域社會의 모든 구성원과의 포괄적인 相互作用보다는 몇몇 主要 提報者(key informant)를 통한 제한된 相互作用에 의해서 調査하게 되므로, 처음 때포(rapport)가 형성된 主要 情報者가 部落에서 갖고 있는 위치 및 사회적 관계에 의해 조사 대상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現地調査는 調査者의 연고자중심이 되었으며, 調査者와 만난 횟수가 많은 일부 사람에 의한 情報 획득과 확인에 치중하였다.

(3) 짧은 기간과 연고지라는 두 가지 제약에 의해 연고자와 調査者간의 交流現象이 住民과 住民間的 相

互作用보다 더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다른 調査者(2人的 調査者 중 1人)에 의해 主觀的 選別 相互作用의 약점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었다.

II. 調査地域의 概況

1. 人口와 農業(1977年末 현재)

調査地域은 하나의 섬으로 1개 面, 13개 里로 되어 있으며, 총인구는 11,631名(男 5,652名, 女 5,979名), 총가구는 2,133家口이다. 이 중 農家數는 1,789家口로 83.9%를 차지하고 있다. 調査者가 住居한 地域(里單位)은 총인구 473名(男 223名, 女 250名), 81家口였다.

○面 耕地面積의 경우 畝이 398.6ha, 田이 618.4ha로 總 1,017.0ha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農家戶當 全國 平均 耕地面積(약 1ha) 보다 훨씬 적은 耕地(약 0.57ha)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섬에 위치한 부락들이 浦口에 집중되어 있어 경작지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점과 이곳에서는 논 한마지가 150명, 밭 한 마지가 80명으로 통용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水利安全畝率도 全國 85%에 비해 훨씬 낮은 34.6%인데, 그나마 즐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農機械 및 農機具 保有臺數는 面全體에 동력경운기 13대, 병충해 방제용 기구 934대, 수동식 분무기 844대, 동력살분기 88대, 동력분무기 2대, 즉답탈곡기 120대, 동력탈곡기 1대, 양수기 13대, 農業用 원동기가 34대(595마력) 등이다.

漁業家口는 1,624家口(全體의 76.1%)나 되나, 전업 家口가 196家口에 불과하여, 農業이 主産業으로 되어 있다.

2. 交 通

調査地域까지의 교통편은 光州에서 莞島까지 직행버스 및 원행버스가 있다. 직행버스는 康津을 거치는 것과 海南을 경유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 약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약 20分 간격으로 출발한다. 莞島—○島間은 하루 2회씩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배편이 있다. 기상조건에 따라 客艘이 결항할 때에는 이보다 작은 낚시배나 유람선을 전세내어 이용하고 있다. 배삿을 1,000원 (본래 객선은 300원)이나 내어야 하는데다 작은 배에 초만원을 이루는 번치항해가 보통이어서 승객의 安全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光州—서울間은 특급열차를 이용했는데 調査期間이 연말 연초라 입석이 많았다. 아직도 공공연히 좌석 하나에 1,000원씩 거래되고 있었으며, 이렇게 하여 자리에 앉았다가 중간역에서 좌석권을 가진 승객에게 자리를 돌려주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보이며, 아직도 이러한 社會不條理를 당연시하는 庶民들이 있는 것 같았다.

3. 生産活動

이곳은 인근에 흩어져 있는 많은 島嶼地方에 비하면 물이 많고 水質도 좋은 논농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특히 보리는 상당히 유명하다. 또한 섬 주위에 水産資源이 풍부해서 農閑期에 많은 農民들이 漁業도 겸해서 비교적 富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엔 漁業이 거의 눈에 띄게 쇠퇴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漁業을 주로 하던 소규모 漁民들의 거의 모두가 주요 항구도시(釜山, 麗水, 木浦 등지)로 移住한 것이다. 이들은 대개 원양어선을 타기 시작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都市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農業 자체만 해도 勞動力이 부족하여 자연히 産業으로서의 漁業은 퇴보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 農作物 이외의 主要生産物로는 미역과 문어를 들 수 있는데, 이곳에 日本의 資本家들이 수년전부터 본격적으로 投資하였다. 섬 동쪽 이곳 저곳에 미역양식장이 있고, 매일 잡아 올리는 문어는—주로 겨울철에—바닷물에 잠긴 통 속에 저장했다가 주로 日本에 輸出되고 있다.

莞島地域의 김 生産은 초겨울의 예상치 않았던 더운 날씨로 김 양식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다 노동력마저

부족해서 勞賃이 크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김 양식업은 앞으로 農家副業이나 企業으로서의 전망이 흐리고 유동적인 편이라 생각된다.

Ⅲ. 觀察과 面接을 통한 印象 및 「삶의 質」의 內容

1. 社會移動

社會移動은 社會階層間的 移動——예를 들면, 小作人으로 지내는 農民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自作農으로, 또는 貧農出身의 子女들이 大學을 나오고 성공해서 中流나 上流社會 階層의 一員으로 올라가는 것——과 地理的인 移動——예를 들면 離農하여 都市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調査에서 특히 유의한 것은 地理的 移動, 즉 離農問題였다. 70年代의 大規模 離農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이로 인해 農村의 人力難이 심각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調査地域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여서 農民들은 이구동성으로 손이 모자람을 불평하는가 하면 莞島郡의 미역加工場조차 人力을 都市로 빼앗겨 經營하기에 힘들다고 푸념들이었다.

농사일이나 소규모 加工業에 종사하는 젊은 靑壯年은 점점 찾기 힘들고, 高齡者와 婦女子의 家事外 勞動參與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靑壯年의 離農現象은 새마을 道路擴張事業 現場에서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이 事業에 參與한 30여명 정도의 住民들 중 젊은 靑年은 2~3名밖에 없었고, 性別 構成으로 보아도 女子가 男子보다 훨씬 많았다. 그런가 하면 여기 저기 빈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논밭을 내놓은 사람이 더러 있는데 살 사람이 없어 離農을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이러한 젊은 층의 都市移住 問題가 農村社會에 주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는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약관화한 것이겠지만, 문제는 離農 또는 都市移住의 原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離農

의 原因을 經濟的인 이유에서 찾아, 農產物價格을 올려 주고 農民의 所得을 올려 주면 자연히 離農問題는 해결되리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經濟問題를 바탕으로 한 一元的인 설명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하겠다. 시골사람들이 도회지로 빠져나가는 것은 농사가 싫어서만도 아니고, 꼭 經濟的으로 貧困해서만도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 거센 都市指向的인 社會風潮가 시골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 미역 加工場의 經營主의 말로도 알 수 있다.

“이곳 미역 가공장에서조차 부지런히 일하면 도시공장에서 일하는 것만큼 벌 수 있죠. 제가 부친 공단에서 일하는 이곳 출신 고등학교 졸업자를 만났기에 한 달 수입을 물어보았습니다. 전기 공품 공장이라는데 속식을 제공받고 2만 5천원 정도랍니다. 야근을 하면 3~4만원은 번다고 하지만 목포 공업 고등학교에서 전기 기술을 전공하고 그 정도인데 도시 경영주들은 노임이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들이니 기가막히는 일입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都市로 빠져나가는 都市指向性이 꼭 經濟的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물론 미역 가공장 같은 農漁村地域의 工業은 季節에 따른 고용이라는 점도 있지만 經濟的인 것 이외에 우리나라의 教育制度 특히 高等教育 기회의 不平等으로 농사일을 배울 나이에 都市生活을 맛보고 나서 다 저들어가는 農村에 돌아와 살려고 하는 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地域間 機會不均等, 文化 및 오락 시설의 都市集中, 産業化와 함께 농사를 천시하게 되는 價値觀의 變化, 大家族制에서 탈피하려는 새로운 結婚觀 및 生活觀 등의 要因들도 離農現象에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離農問題의 解決을 진정 바란다면 政策者들이 公平하고 均等한 地域開發을 위한 綜合的인 對策을——물론 현재의 政策이 離農을 막기 보다는 장려하는 政策이므로 經濟政策의 전환없이 離農問題를 운운해 보았자 별다른 도리가 없겠지만——수립해야 할 것이다.

2. 環 境

1개 面만을 둘러보고 韓國農村의 自然環境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측하기 힘들다, 이곳에서는 公害가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農藥을 지나치게 살포하여 종래의 自然은 均衡이 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 農民은, 원래 이곳에는 뱀이 참 많았는데 농약을 하도 뿌려대어, 개구리가 없어지고, 요즈음에는 눈에 잘 안 보이고, 쥐만 부쩍 많아져 골치라고 말하였다.

새마을 취로사업으로 인해 지난 5~6年 사이에 道路사정은 많이 개선되었고, 調査期間에도 道路擴張 工事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政府의 시멘트가 배로 운송되고 있었다.

電力은 거의 모든 家庭에 供給되고 있으나, 그 시간은 저녁 어두어져서 3~4시간 정도밖에 안되고, 냉장고는 볼 수 없었다. 島嶼地方이라 韓電의 電力이 供給되지 않고 部落單位 自家發電이기 때문에, 기름값의 상승은 겨우 文明의 利器를 맞보기 시작한 農漁民들에게 부담을 크게 增加시킬 것이 예측된다.

3. 健康과 疾病

健康과 疾病 문제에 관한 것은 예방의학 등의 보다 體系의이고 규모있는 調査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며칠간의 짧은 參與觀察로 정보를 얻기 힘들다, 本面에서, 지난 10년간 住民의 보건, 위생 및 건강에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 섬에는 아직도 이렇다할 病院이 없고, 서쪽에 있는 여객선 뱃머리에 두 세 개의 약방이 있는 정도였다. 그나마 진통제나 구급약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주민들이 진통의 해결을 시간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調査者는 두 사람의 주민으로부터 복통이나 치통에 먹는 약이 있으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

위생 관념이나 위생 시설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다. 그 한 예로서, 이번 調査에 데리고 갔던 두 살된 아이가, 돌아와서 머리를 몹시 긁기에 살펴보니 이가 옳아 있었다.

母子保健面에서는 産兒制限을 위한 藥은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男兒選好의 경향이 아직도 絶對的이라 하

겠다.

그러나 이곳 아이들은 수년전보다는 비교적 깨끗한 옷을 입고 있고 혈색도 밝은 것을 보면, 영양섭취 면에서 生活이 조금은 나아진 듯하다. 肉類는 종래와 다름없이 마을 잔치에서 나누어 먹는 정도인 듯하다.

4. 所得과 貧困

農家所得이 어느 정도 나아졌느냐에 대해 아직도는 是非非가 계속되고 있고, 짧은 기간의 參與觀察의 方法으로는 10年前에 비해 實質所得이 어느 정도 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資料는 얻기 힘들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소비행위 측면에서 所得의 몇 가지 指標를 찾아 보았다.

우선, 住宅改良을 보면 島嶼地方이라 전시효과를 위한 住宅改良에 대한 政府의 壓力이 없었던 탓도 있겠지만, 아직도 반수 이상이 초가집 그대로였다. 단지 電力의 사용과 TV의 보급 등으로 所得水準이 어느 정도 向上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年前 쯤에 이 섬에서는 자동차를 생각도 못했지만 3년전에 낡은 택시 한 대가 面 전체의 교통수단이 되었고, 현재는 도로 사정의 진보와 함께 택시(포니) 세 대와 마이크로 버스가 섬의 東西間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또한 소형 트럭도 한 대가 있어 移徙나 물건을 나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 교통사정과 수송수단의 진보가 生活用品의 供給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住民生活이 좀더 풍요하고 편리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農家の 副業으로는 미역양식을 들 수가 있는데 섬 동쪽에 사는 住民들이 공동으로 양식장을 가꾸어 農外所得을 얻고 있다. 또한 집집마다 돼지를 길렀는데 팔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마을 잔치에 어느 집의 돼지를 쓸 것이며, 그 돼지 값은 얼마로 할 것인가를 놓고 잡음이 일어나,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옛날처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貧農은 눈에 띄지 않았고, 人力부족으로 勞賃이 상당히 높아져 품

았이를 해서라도 生計는 해결된다는 印象을 받았다.

5. 公共秩序와 安全

이곳은 범죄 형태나 法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는 社會問題들은 적은 편이었고, 특히 靑少年層이 거의 都市로 빠져 나가고 없어 비교적 평온한 고장인 것 같다. 그 반면에 이러한 靑壯年의 離農으로 社會秩序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족 모두가 轉出하는 離農은 人力難 이외에는 農村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나, 家族 일부의 轉出은 耕作規模의 擴大나 土地에 대한 인구 압력을 경감시키지도 못하면서 家族의 分解만을 가져 온다. 따라서 社會組織의 基本單位인 家庭의 不安定性을 초래하여 社會 전체의 安定性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즉 家族間에 不平等하고 비정상적인 社會的 相互作用(social interaction)을 가져와 한 部落社會의 安定(stability)과 統合(integration)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6. 教育, 科學 및 藝術

現代社會에서 가장 중요한 人間의 基本權의 하나로 '배울 수 있는 權利' 즉 '無知로부터의 해방'을 들 수 있다. 教育을 통해 科學精神과 技術을 습득해서 生活의 合理化를 기하고, 나아가서 人間의 마음 깊숙히 솟아나는 表現의 自由와 創意의 能力을 啓發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均等한 機會를 주는 것은 國家와 社會의 責任이며 義務라 하겠다.

本 面의 教育機關으로는 國民學校가 세 개, 中學校가 하나 있는데, 國民學校는 義務教育이므로 全 住民의 子女들이 初等教育은 받을 수 있으나 中學校에 進學할 수 있는 學生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나 마 시골 中等教育의 취약성 때문에 都市의 中等教育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기 마련이다. 高等學校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여, 부모가 子女를 高等學校에 進學시키자면 어쩔 수 없이 도회지로 보내야만 한다. 이러한 教育機會의 不均等은 젊은 사람들을 農村에서 쫓아내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 하겠다.

教育과 관련하여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자식의 '成功'을 위해서는 육지에 보내야 한다는 父母들의 기대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녀를 農業系學校에 보내어 營農後繼者로 육성시키겠다는 의욕은 없고 社會的, 經濟的으로 成功토록 하기 위해 자식들을 都市로 보내야 하겠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都市生活에 대한 동경은 農村生活에 대한 不滿을 가중시키고, 農民들 중에는 자신의 職業과 生活環境에 대한 이미지로 자기를 卑下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 住民은 調査者가 물기도 전에 "변소는 예나 지금이나 더럽고 지저분한데, 그곳에 사는 구더기보다 못한게 우리 인생이요"라고 표현 하였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개인적으로 農地를 소유하지 못하고 教育水準도 낮은 農民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이 사람이 住民 전체를 代表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農村에 남아 있는 사람은 뭔가 人生의 낙오자같은 無氣力하고 宿命的인 生活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7. 社會參與와 疎外

參與(participation)와 疎外(alienation)는 얼핏보면 概念이 상반되는 用語 같다. 그러나 실제로 疎外는 단순히 參與의 反對語가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개념을 가진 用語이다. 社會學者들은 市民들이 地域社會活動에 參與를 꺼리고 기피할 때 이들을 疎外된 사람들이라고 規定하고, 나아가서 疎外된 사람들이 많을 때 그 社會 전체를 疎外된 社會라고 부른다. 社會活動에 參與하면서도 그것에 不滿이 많고 疎外感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形態의 參與를 소극적 參與 또는 否定的 參與(negative participation)라고 부른다면, 이러한 現象도 일종의 疎外現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좋은 예로는 強要된 參與(forced participation)를 들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社會에서나 이러한 強요된 참여가 있지 마련이나, 強要된 參與가 가장 적은 社會를 쉽게 말해서 民主社會——이 用語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相對的 概念라 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市民이나 住民이 社會的 또는 國家的 活

動에 參與하고 싶는데 參與를 거절당하는 경우에도 疎外感은 발생한다. 즉 參與할 機會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社會는 더욱 더 疎外된 社會로 변모한다.

疎外現象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정도는 疎外的 代價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다. 가상의 예로 市民들이 일제히 결의하여 모든 社會活動에 불참할 경우 그 社會는 죽은 社會가 되고 만다. 또 다른 예를 들면 社會活動의 일부에는 參與하고 다른 일부 活動에는 參與를 거절하거나 거절당할 때 그 社會는 절름발이 社會가 된다. 많은 政治學者나 社會學者, 人類學者, 心理學者 등이 人間疎外的 代價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오랫동안의 研究結果를 통해 주장해 왔다. 市民들이 政治參與에서 疎外될 때 그 社會는 獨裁社會가 되고, 外部와의 交流가 거절당할 때 폐쇄된 社會가 되고, 市民과 市民 개인간의 자유로운 相互作用이 거절당할 때 人間은 限界人(marginal man) 또는 최악의 경우 미쳐버린 사람(Schizophrenic)이 되고 만다.

이번 參與觀察에서 調査者가 한결같이 느낀 것은 農村住民들이 너무나 많은 部門에서 社會로부터 疎外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생각은 시골이 다른 나라같은 印象을 주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첫째, 이곳 調査地의 農民들은 文化的으로 疎外된 사람들이다. 특히 島嶼地方이라는 地理의 特殊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이곳 住民들은 外部와의 文化交流를 거절당해 온 전형적인 경우로 보인다. 文化施設面에서 도서관 하나 제대로 없고 劇場이나 영화관 같은 大衆文化의 전당은 물론 없으며, 가끔 선택된 弘報用 영화들이 住民에게 제공되나 그것이 이들에게 文化的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 같다. 都市文化와의 접촉은 주로 최근에 많이 보급된 TV에 의한 것인데, 프로그램이 中央 중심이어서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다. 서울 中産層의 生活을 素材로 한 劇이나 오락물만 눈에 보일 때 시골 靑少年들의 都市선망은 더 늘어날 것이다. TV프로그램의 內容뿐 아니라 보급 자체가 農村住民들 사이의 相互作用을 적게 하여 더욱 더 疎外시키는 結果를 낳는다. 예전처럼

동네 집 큰 방에서 住民들이 모여 친목을 돈독히 하고 社會의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 對話를 나눌 수 있는 機會는 TV로 인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家族들이 모두 TV 앞에 매달려 이웃과의 교제는 물론 가족사이의 交互作用도 축소되고 있다. TV가 없는 家口의 경우도 疎外現象은 뚜렷하여, 한 동네에 TV가 몇 집 없을 때는 이웃끼리 서로 모여 같이 구경하곤 했으나, 많은 家庭이 TV를 가지면서 없는 사람은 相對的인 貧困을 더욱 절감하게 되고 疎外感만 增加되고 있다. 따라서 農村住民들이 모두가 너나 할것 없이 TV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TV의 보유 대수가 農村에 늘었다고 해서 과연 農民들의 삶의 質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가에 하는 것이다. 둘째, 農民들은 마을 共同일에서도 參與方式에 따른 疎外를 느끼고 있다. 調査期間이 農閑期여서 새마을취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안길 擴張工事が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곳 住民들은 「부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오늘도 부역있다고 하더냐?”

“글쎄, 모르겠소. 방충이 나오겠지라우.”

위의 對話가 家族內에서 이루어져 오늘의 할 일을 調整하게 된다. 年老해서 극히 쇠약한 老人들을 제외하고는 노동력이 있는 家庭에서는 반드시 한 사람이 부역에 참여해야 하므로 家族間의 調整이 필요한 것이다. 취로사업 참여의 댓가로 마을의 交通事情이 나아진다는 간접적인 共同利益이 있고, 그 밖에 日當 2,000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직접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基金으로 들어간다. 한 중년 부인에게 이렇게 모인 마을 基金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잘 모른다고 하면서 里長에게 물어 보라고 하였다.

마을環境 改善의 參與가 마을 사람들의 相互作用을 촉진하고 疎外意識을 줄이며 共同利益을 위한 集團意識을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마을 안길 擴張이 끝나면 어떠한 事業이 다음에 이루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한 離農으로 인해 동등한 人力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도 마을 공동일의

參與態도와 集團의 同質性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세계, 이곳 農民들은 政治로부터의 疎外가 큰 것 같다. 中央의 日刊紙를 보는 집이 얼마되지 않아 나라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印象이다. 里長이나 指導力이 있는 靑壯年들까지도 政治에 관한 얘기를 하면 머뭇거리며 꺼리고 있다. 나라 일은 모두 위에서 지시하는 데로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政治的 疎外(political alienation)의 典型的인 경우이다.

따라서 政治로부터의 疎外는 말할 것도 없고 政府 또는 行政機關으로부터의 疎外도 그 도가 지나쳐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더러 눈에 띄었다. 調査 당시의 어느 農村처럼 폐지값 문제와 農協에 대한 불만이 깊었다. ‘農協出資金은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또는 ‘組合이 稅金을 걷어가는 官廳에 지나지 않는다’ 등의 表現은 아직도 農協이 農民을 위한, 農民에 의한, 그리고 農民의 自發的 團體가 되기에는 不充分的인 것임을 말해 준다.

한 農民은 木浦에서 5만원짜리 보증수표를 받았는데 이곳에 와서 자기가 속해 있는 單位組合에 가서 바꿔 달라고 했더니 추심하기도 귀찮고, 또 서울의 외환은행이 발행한 것이어서 바꾸어 줄 생각도 안하더라고 말을 하였다.

農民의 利益團體로서 農民들의 삶의 質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機關이어야 할 農協이 出資金만 받아가는 기관으로 農民들에게 인식되어서인지 政府로부터의 疎外는 그 도가 조금 지나친 것 같았다. 農村의 農民이 政治, 社會, 文化的으로 疎外感을 느낄 때 제일 쉽게 택하는 것이 農村을 떠나는 것이겠지만, 都市로 이주할 형편이 못되거나 都市生活이 싫어서 이곳에 남아 있는 農民들의 疎外感이 점점 깊어진다면 國家의 입장에서 나중에 비싼 댓가를 치루어야 할 素地가 있다고 보더라도 지나친 추측은 아닌 것 같다.

IV. 앞으로의 課題

1. 農村調査地域에 관한 考慮

지금까지의 農村調査는 農家經濟의인 觀點에서 주로

도시근교나 평야지대의 農村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물론 調査者의 研究內容이나 研究方法에 따른 적절한 特定部落이 있겠으나, 農村住民의 삶의 質을 파악하는데는 島嶼 및 山間地坊의 農民에 대한 研究調査도 필요하다. 이는 平野地帶의 農村과는 다른 生態界를 갖고 있으므로 거기에 적용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way of life)」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한 지역의 특수성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2. 農村調査過程에 있어서의 方法問題

社會調査가 調査對象의 社會的 實體(social reality)를 밝히려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實體를 制度化된 類型으로 볼 수도 있고 또 社會的 相互作用의 過程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어느 쪽이든 대개 社會調査가 研究者에 의해 미리 정해진 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일단 研究의 틀이 정해졌다고 가정한다면 社會調査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調査者가 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대개 制度化된 行爲類型 또는 社會的 事實(social facts)에 研究의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질문지를 이용한 面接調査가 주로 쓰이며, 社會的 相互作用에 비중을 둔 경우에는 흔히 參與觀察을 택하고 있다. 이 둘을 비교하면 面接調査는 一般化와 反復調査가 쉽지만 調査內容의 융통성이나 자연스러운 조사분위기가 마련되기 어렵지만, 參與觀察은 이점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社會調査에서 이 두 가지를 겸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研究者의 觀點에 치우치게 마련인 調査研究 자체가 調査對象인 農民들의 觀點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調査者와 農民간의 社會·經濟的 격차가 심하기 마련인 農村調査의 경우 質問紙에 의한 面接調査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충분한 조사시간을 통한 參與觀察이 필요함을 느꼈으며, 이와 關聯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民族誌的 方法(ethnomethodology)이나 非指示的 方法(unobstrusive method)도 注目해야 할 것이다.

3. 「삶의 질」研究의 方向

이번 調査에 삶의 質을 7가지 分野로 나누어 살펴본 바, 실제 개개 分野의 內容이 因果的 關係 또는 相互作用에 의해 서로 연결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離農과 그 原因 중의 하나인 教育機會의 不平等, 그리고 그 結果로 볼 수 있는 家族分解와 疎外 등은 하나의 社會現象이 農民의 삶을 어떻게 規定지우며 變化시키는가를 말해 준다.

따라서 「삶의 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人間의 총체적 삶의 內容과 그 內容間的 關係까지도 잘 설명할 수 있는 社會指標의 構成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農民의 삶의 質 측정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 다른 삶의 方式을 갖는 사람들

이 하게 되므로 그들 스스로가 보는 農民·農村·農業에 대한 이미지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개의 住民들이 '農村實情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다'가 구체적으로 住民의 認知構造 속에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앞으로 研究할 필요가 있다. 또한 調査者가 먼저 質問하였을 때 質問項目에 대해 '그저 그렇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저 그렇다의 見解가 어떻게 解析되어야 하는지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고 項目間的 關係가 서로 확인될 수 있도록 調査方法의 개발과 調査結果에 대한 解析이 중요하다. 즉 原住民 자신의 見解(emic view)와 調査者의 見解(etic view)가 서로 調和되도록 할 때 現象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質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指標가 作成될 수 있는 것이다.